

## [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 경과 및 결과의 요지]

### 1. 양형위원회 제116차 회의 내역

- 일시 : 2022. 5. 2.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주요 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의 건

### 2.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 전문위원 회의 업무지원
-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3. 전문위원 업무보고

- 전문위원 제146차 전체회의 내용 보고

### 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의결

#### 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대한 심의·의결

##### 1) 설정범위에 대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

- ① 아동·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공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추가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형법 제305조 제2항) 추가
- ③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성범죄) 가중처벌(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추가

##### 2) 유형 분류에 대한 쟁점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

- ① 아동·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공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 : 대유형 1.의 중유형 다.에 신설 범죄 부기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 대유형 1.의 중유형 라. 및 대유형 2.의 중유형 나.에 신설 범죄 부기
- ③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특수강도 관련 서술식 기준 수정
- ④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성범죄) 가중처벌 : 유형의 정의 추가

- 3) 유형 분류에 대한 쟁점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 대유형 1.의 중유형 라. 및 대유형 2.의 중유형 나.의 제목
    - 기존 제목 옆에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을 부기하는 것으로 정함

#### 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권고 형량범위에 대한 심의·의결

- 1)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의 형량범위
  - 전문위원단 의견과 같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과 청소년 강간의 소유형을 분리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의 형량범위를 감경영역 3년 6월 - 6년으로, 가중영역 7 - 10년으로 각 상향하는 것으로 정함
- 2)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의 형량범위
  - 전문위원단의 다수 의견에 따라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의 형량범위는 감경영역을 2년6월 - 5년으로, 기본영역을 4년 - 7년으로 각 하향하는 것으로 정함
- 3)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은 감경영역 2년6월 - 4년, 기본영역 3년 - 6년, 가중영역 5년 - 8년으로,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은 감경영역 3년6월 - 5년, 기본영역 4년 - 7년, 가중영역 6년 - 9년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으로 정함
- 4) 결과적 가중범과 기본범죄 사이 불균형
  - 상해/치상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인자)로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와 치사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인자)로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다른 양형조건이 동일한 기본범죄보다 가벼운 형량범위가 권고되는 유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서술식 기준을 부기하는 것으로 정함

- “다만,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5) 특정강력범죄 등 누범과 동종 누범 사이의 불균형

- ‘특정강력범죄(누범) 또는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한 성격의 양형인자인 ‘동종 누범’ [특별가중인자(행위자인자)]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가벼운 형량범위가 권고되는 유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서술식 기준을 부기하는 것으로 정함
-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 다.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양형인자에 대한 심의·의결

- 1) 양형인자에 대한 쟁점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
  - ① 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수정
  - ② 처벌불원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라 특별감경인자로써 처벌불원만을 인정하고, 일반감경인자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통일하며, 처벌불원의 정의규정을 둠
  -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정의규정 수정
  - ④ 특별가중인자 중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위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추가
  - 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정의규정 마련
  - ⑥ 일반양형인자인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및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의 각 적용범위 명시
- 2) 양형인자에 대한 쟁점 중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
  - ①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및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

- ② 누범 및 전과 관련 : ‘동종’의 범위 확대 여부
  - 동종 전과와 관련한 특별가중인자, 일반가중인자 및 정의규정 수정을 위한 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행 유지됨
- ③ ‘진지한 반성’의 정의규정 신설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결의에서 의결한 대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함
- ④ 일반강제추행(1의 나. 제1유형)의 일반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신설 여부
  - ‘미필적 고의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정함
- ⑤ ‘인적 신뢰관계 이용’의 정의규정에 예시 추가 여부
  - ‘사제’를 ‘제자’로 수정하고, ‘환자, 부하, 신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함
- ⑥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에 ‘2차 피해’ 추가 여부
  - 위 일반가중인자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라 문구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수정하고 그 정의규정을 추가하되, ‘2차 피해’ 문구는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정함

#### 라. 성범죄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아래의 쟁점은 논의를 거쳐 의결
  - ①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 따라 참작사유를 수정하고, ‘피고인이 고령’ 및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라는 참작사유를 삭제하며, 강도강간 문구 옆에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을 추가하는 등 수정
  - ② 그밖에 주요참작사유 논의는 특별양형인자에 관한 논의와 같고, 일반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일반양형인자에 관한 논의와 같음

#### 5. 다음 회의(제117차 회의) 일정

- 일시: 2022. 7. 4.(월) 오후 시간 미정
- 안건: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